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유 진

2014년 8월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의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이 유 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이유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초록>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

이 유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타인존중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가운데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중 16명을 선정하여 8명은 실험집단으로 8명은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매주 2회, 50분씩 총 9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의 측정도구는 인간관계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0)에서 사용한 것을 이의종(2003)이 수정한 인간관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인간관계의 하위요인은 만족감, 의사소통성,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으로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타인존중태도 검사를 위해 조인실(2008)이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타인존중태도 검사의 하위요인은 입장변화, 친절, 관용, 약속, 봉사, 협동, 의견존중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 방법으로 SPSS Windows 18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에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t 검증을 통한 차이를 검증하였고,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해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기별 소감문 분석과 연구자의 관찰내용을 통한 분석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인간관계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만족감, 의사소통성,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에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타인존중태도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넷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입장변화, 관용, 약속, 의견존중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친절, 봉사, 협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사회적인 유능성의 향상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향상시켜 자기 자신 또한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생들의 따돌림과 왕따

등의 인간관계 능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데 본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II. 이론적 배경	6
1. 저소득층 아동	6
2. 인간관계	12
3. 타인존중태도	15
4. 품성계발 프로그램	18
III. 연구방법	26
1. 연구대상	26
2. 실험설계	26
3. 연구도구	27
4. 연구절차	33
5. 자료처리	35
IV. 연구결과 및 해석	36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36
2. 가설검증	38
3. 소감문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41
V. 논의 및 결론	44

참고문헌	48
Abstract	53
부 록	56

표 목 차

표 I.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	7
표 II.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8
표 III. 프로그램 구성과 회기별 세부목표	28
표 IV. 인간관계 측정도구 문항구성	32
표 V. 타인존중태도 측정도구 문항구성	33
표 VI. 연구의 진행절차	33
표 VII. 인간관계 사전 동질성 검증	36
표 VIII. 타인존중태도 사전 동질성 검증	37
표 I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간관계 사후-사전검사 결과 비교	39
표 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타인존중태도 사후-사전검사 결과 비교	40
표 XI. 회기별 소감문	42

그림 목 차

그림 I.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	11
그림 II. 품성계발프로그램 덕목의 구성과 그 역할	20
그림 III. 실험설계모형	2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와 개방화에 따른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각종 범죄나 비도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의 상실이나 물질 만능주의, 도덕성의 상실 등이 점점 심해져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증가하고,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문제로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2013)에서 이러한 문제는 초등학교 교육목표인 아동의 인성 및 도덕성, 사회성 함양이 미흡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가정에서 아동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워주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으나,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맞벌이 가정 및 부모의 부재 등 열악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 환경적 결핍으로 인해 아동의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정서불안이나 신체적 이상을 경험하여,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곽형식, 2008).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는 빈곤층이 점점 증가하고, 가정해체와 가족기능의 약화가 심화되면서 아동은 경제적 박탈 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유효림, 2009).

저소득층 아동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친구나 이웃 등에 비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인식하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좌절감이나 열등감은 학교생활에서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공격적인 행동,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같은 또 다른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은 사회

적 대처행동이 취약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남현우, 이지현, 1999). 가정에서 빈곤이나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로 충족되지 못한 발달은 사회에서 아동들의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사회에 귀속되어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규칙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공동체 속에 생활 할 수 없으며 소속될 수도 없다.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약속을 존중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정일, 2009).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러 형태의 끊임없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부모, 형제, 친구 등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며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자기관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이형득, 1992; Rogers, 1961; Sullivan, 1953;). 아동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교육을 통하여 배려와 정직의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 학습된 원만한 타인과의 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청소년 문제 예방과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품성 교육을 중시하였다. 학교 교과과정에서 도덕적 규범과 가치를 가르치는 비중을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도덕적 가치관과 품성적 특질들을 가르치고 있다(최희정, 2013).

품성은 단순히 지식만 쌓으면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단기간 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본래의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회성, 유연성 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배려, 정직 등과 같은 도덕적 측면을 부단히 갈고 닦으면서 이를 내면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때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자아와 개인적 가치의 기초가 형성되고 발달되는 변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품성계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개입을 제공하여 여러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며 집단내의 바람직한 도덕적 규범을 따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촉진을 필요로 한다(남궁달화,

1997).

이의중(2003)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품성은 그들이 살아갈 평생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청소년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된다고 하였다. 아동기 시기에 형성되는 도덕적 품성 계발이 건강한 자기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초석이고 (Ashton&Huitt, 1980), 아동들로 하여금 훌륭한 도덕적 품성을 토대로 자신의 건강한 자질을 잘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우리사회의 비도덕성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1995년부터 도덕성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부터는 보다 기본적인 ‘청소년 품성계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인 ‘멋진 우리’를 개발하고 보급에 힘을 쓰고 있다 (박성민, 2009).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정직, 배려, 자기조절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덕목의 함양을 위해 모델학습, 집단토론 및 피드백, 심리극 기법,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 기법들이 활용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0).

지금까지 품성계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 (감민경, 2008; 권소영, 2011; 박성민, 2009; 배화중, 2012; 양은모, 2006; 이의중, 2003; 이정희, 2008)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이 올바른 품성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타인을 존중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변 상호작용을 통한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길러주는 효과를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도움을 주는가의 효과를 보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아동이 올바른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타인존중태도에 효과가 있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인간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만족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의사소통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신뢰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친근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5.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민감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6.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개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7. 인간관계 하위요인인 이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8. 인간관계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품성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타인존중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1.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입장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친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관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약속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봉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6.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협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7. 타인존중태도 하위요인인 의견존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8. 타인존중태도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인간관계, 타인존중태도,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소득층 아동

가. 저소득층의 개념과 기준

저소득층이란 소득계층 구조에서 하위를 점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계층이며, 국가로부터 최저한의 생활 보장과 사회 안정망을 통해 보호 받는 계층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가구 규모 등을 반영하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최현, 2007).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2012)를 살펴보면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말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용어를 살펴보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각종 복지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를 말한다. 저소득가정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른 수급자 선정 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양정은(2011)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정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계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일반적 의미의 저소득가정이다. 이와 별

개로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정도인 가정을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 이들의 실질적인 수입은 저소득가정과 별 차이가 없으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얻는 혜택은 큰 차이를 보여 왔다. 차상위 계층 또한 저소득가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01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보육료 100%를 지원받는 가정을 ‘저소득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의 가정으로 정의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이 산정되고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I. 2013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기준(보건복지부, 2013)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3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축소를 위해 기초생활 부양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13. 7월 자료, 통계청 제공). 보건복지부의 2013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말한다.

2)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모 또는 외·조부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포함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2013년 한부모 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소득 인정액의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201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여성가족부, 2013)

(단위 : 원/월)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3년	1,266,500	1,638,410	2,010,319	2,382,227	2,754,136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여성가족부 교육정보 자료). 통계청 자료(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3년 8월)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수는 2005년 1,370천 가구에서 2010년 1,594천 가구, 2012년 1,677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8.6%에서 2010년 9.2%, 2012년 9.3%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구의 형성 원인 중 사별이 29.7%, 이혼 32.8%, 미혼모·부가 11.6%로 사별 외의 요인으로 한부모 가구가 형성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3)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대상자를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이태욱, 2009).

보건복지부 자료(2013)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정을 말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하는 기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되었다.

나. 저소득층 아동의 특성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저소득층 아동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서 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품행장애와 행동문제, 우울증, 낮은 자아존중감, 빈약한 사회적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고선주, 2010).

저소득층 아동들은 그들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나 지식 등의 부족으로 건강, 위험 및 사회화에 대한 결핍 등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결핍된 환경으로 인해 아동들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기에 사회문제를 일으킬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고, 중간 계층 이상의 아동들과 계층 간의 괴리현상을 느끼면서 성장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낙후성으로 인해 아동의 사회적 발달이 저해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빈곤문화 속에서 아동의 성격은 걱정, 두려움이 많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을 형성한다고 보았다(김선자, 1999; 고경은, 2002; 유효림, 2010).

2008년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은 52.7%가 한부모 가정, 6.6%가 지하나 옥탑 등 열악한 주거공간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생활비에서도 최저생계비 미만과 최저생계비 120% 초과 가정 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18세 아동·청소년 가구의 빈곤율은 최저생계비이하의 절대빈곤층이 전체의 7.8%로 나타났고, 상대빈곤율은 11.5%로 조사되었다. 지역적

특성으로 농어촌 지역이 아동빈곤에 가장 취약하였으며,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방과후 아동 혼자 가정에 3일 이상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의 경우(9~11세 아동기준) 20.70%, 최저생계비 100~120%의 경우 27.80%로 나타나 아동의 가정에서의 생활 및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며, 문제행동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8세까지는 문제행동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9~11세의 문제행동은 12~18세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문제행동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부모의 관심어린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습관은 올바르게 못한 교우관계 및 품성계발로 이어져, 지역사회 내에서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청소년기의 습관으로 인해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처럼 저소득가정 아동의 생활실태는 가정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소득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할 교육과 정서함양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가정과 부모가 주는 어려움의 요소들 때문에 발달과정에 필요한 요인들의 결핍 또는 열악함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올바른 성장과정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겪는 결핍요인은 장차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을 경험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양정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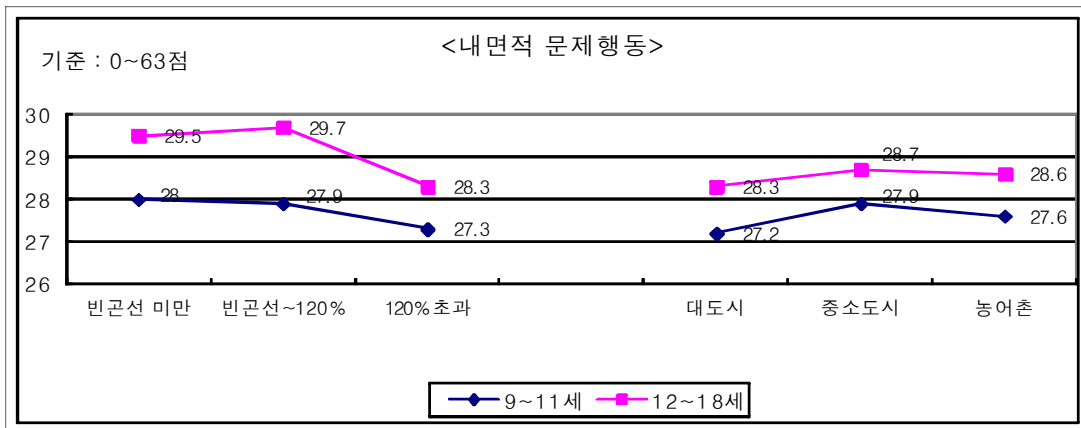


그림 I.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2008)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 보다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체계에서 적응,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더 많은 적응 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낮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오승환, 2001).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어서 빈곤이라는 취약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 청소년이라는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이다(박현선, 1998).

이러한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는 개인적 또는 가정적인 문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져 인간관계에서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저소득층 아동은 경제적 소득이 낮은 것 뿐 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측면에서 총체적인 생활조건이 매우 빈약하고, 이웃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빈곤감과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면적 박탈을 경험한다(목진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발달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한다.

2. 인간관계

가. 인간관계의 개념 및 중요성

인간을 정의할 때,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듯 인간은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형성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또한 인간과 인간 속에서 형성이 되어가는 것을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 즉 인간 관계적 존재이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타인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때는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꾀할 수 있고, 반대로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일 경우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성장, 발달은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이숙고, 2003).

인간관계란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상호간에 일어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관계의 형성은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며, 그 이후 학교생활을 통해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으로 자아의 성숙이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시기부터 적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관계는 사람을 대하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며, 개인의 내적인 성격과 외적 행동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최부근, 1993).

한 인간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인간의 자아 성취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성취감을 맛본다고 할 때 또래집단, 학교생활, 직업생활, 결혼생활 등에서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적이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양식이다. 다른 사람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엄성호, 2004).

인간관계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적응변인이 되며, 개인적인 문제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방면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다(최문희, 2005).

아동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심리적 만족,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여, 정체감 형성 및 건전한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올바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부분이다.

나. 인간관계와 아동

아동들은 많은 친구들을 형성하며 우정을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관심사 중의 하나로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가면서 부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친구와의 교우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발달해 가는 시기이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을 획득하게 되고 아울러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친밀감이나 도움 등 다른 관계특성과 더불어 상당한 갈등을 지각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권이중, 1992-청소년과교육병리, 서울:양서원).

아동들은 유아기 시절부터 가족과 맺는 가족관계를 시작으로 학교에서 또래관계 형성과 그 후에 사회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결손 가정 아동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올바른 모델을 접할 기회가 일반가정에 비해 적고, 일반적 가정 아동의 양육방식을 접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에릭슨(Erikson, 1963)에 의하면 아동이 또래들 사이에 고립되거나 소외된다면 또래에 대한 동일시가 방해받게 되어 부적절감과 열등감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프로이트(Freud, 1926)은 아동의 에너지는 또래와의 우정에 집중되어 있고, 또래집단에서 인정을 받음으로써 아동은 심리적 안정을 키우고, 또래관계에 만족할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행동과 외모, 가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서영이, 2004).

이렇듯 아동기의 인간관계 형성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상경(2008)의 연구에서 인간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성격과 발달에 있어서 중

요한 특성으로 부모에 대한 감정적 의존이 감소하면서 교사, 친구, 상급생, 하급상과의 대인관계가 시작되어 그 폭이 넓어진다고 하였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비슷한 연령으로 된 또래 집단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거나 행동 규범을 익히며 사회성과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자신감과 가치감, 자존감에 대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신감이 있고 우호적이며 책임감을 가질 수도 있으며 공격적이고 위축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인간관계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외적 환경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므로 외부의 인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조성해 주거나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와 능력을 길러준다면 학교 내의 인간관계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이의중, 2003). 또한 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기존중감을 높여주고 위로를 주며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상대가 문제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기여하여 행복하고 자아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설기문, 2002).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의 결여에서 기인한다.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발달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인간관계 발달을 위한 능력은 상담과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즉, 인간관계는 스스로 얻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긍정성을 형성한다(엄성호, 2004).

이렇게 형성되는 아동기 올바른 인간관계는 아동이 성장한 후에 사회적응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관계의 형성은 어린시절 가정, 학교, 또래관계에서 시작되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타인존중태도

가. 타인존중의 개념 및 중요성

타인이라는 의미를 사전(국립 국어원, 2012)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른 사람’을 나타내며, 존중은 ‘높이여 귀중하게 대함’을 나타낸다. 두 의미를 합치면 다른 사람을 높이여 귀중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타인존중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타인을 귀중하게 대하고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남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인관계 유지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며 이러한 능력은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본다(임기숙, 2003).

조인실(2008)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생활하면서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유기적인 사회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 서로의 모습과 체격이 다르듯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바람직한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이익도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 느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등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조망능력이라고 한다. 조망능력은 다른 사람의 생각, 의사, 동기 등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인 인지조망능력과 다른 사람

의 감정이 나와 다름을 알고 그 사람의 감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인 감정조망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현, 1984; 박서식, 2003; 박승순, 1984; 이정혜, 1987).

조망능력에 대한 Selman의 5단계 구성을 살펴보면, 제 1단계는 아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행동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관점과 조망적 관점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조망 수용의 단계이다. 제 2단계는 아동이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은 주관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반응이 다르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의 단계이고, 제 3단계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조망 수용을 하면서, 자신의 관점 또한 다른 사람의 조망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반성적 조망 수용의 단계이다. 그리고 제 4단계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둘 간의 관계 외에 제 3자인 공정한 관찰자의 관점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상호적 조망 수용의 단계이고, 제 5단계는 자신의 관점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회체계 내에서 이 관점들을 분리할 수 있는 사회 입습적 조망 수용의 단계이다(Perry & Buessy, 1984).

타인존중태도의 기초가 되는 조망능력을 통해 타인존중의 구체적인 행동 실천이 나타나고 그로인해 사회적응태도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망능력은 태어남과 동시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시기에 타인존중태도를 길러줄 필요가 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임을 잘 알려주고 있으며, 둘 이상 모이면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생활하게 된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 생활하면서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과 체격이 다르듯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사람의 감정과 느낌도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하여 역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박서식, 2003).

타인존중태도에 대하여 살펴 본 바와 같이 타인존중태도는 조망능력을 기본으로 발달하므로, 조망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아동의 초등학교 시기에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통해 혼자됨의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며, 어려움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파악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게 되어 타인존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타인존중과 아동

유아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서서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동기가 되면 사람들마다 사고나 감정이 각각 다르고, 다른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역시 알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한 사회체제 안에는 통합된 조망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통합된 조망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함을 알게 된다(정일, 2009).

아동은 연령, 성별, 학년의 수준에서 비슷한 친구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며 애정을 가지고 상호의존적으로 관계를 맺어간다. 또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이 증가되면 자기중심적 사고가 감소되고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진다. 아동은 또래를 통해서 함께 있어주거나 경험을 공유해 주는 동반적 지지를 주고 받고, 이를 통해 아동들은 사회적 발달에 안정감을 얻고 타인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며 관대함과 이해심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또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 사회 인지적 기술의 기초를 발달시킨다(도수정, 2010).

다른 사람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타인존중의 의미를 아동들은 또래관계를 통하여 습득하게 된다. 또래관계를 통한 타인존중태도는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품성계발 프로그램

가. 품성의 정의

품성의 사전적인 의미(국립 국어원, 2012)를 살펴보면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단어의 의미가 추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품성과 유사한 단어로는 성격, 기질, 성품, 인성 등이 있고,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성질로 공통 지을 수 있다.

교육학대사전(서명원, 1989)에서는 품성교육을 성격교육으로 보면서 평소의 성격형성이 바람직하게 되도록 환경과 인간관계 등을 부드럽고 원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교육학용어사전(1965)에 의하면 품성이란 지적, 정적, 의지적 특성들을 포괄하는 정신적 특성으로 개체의 ‘노력’ 또는 ‘후양’에 의해 형성되는 특징에 한정되어 이해되는 말로써 생득적 특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품성이라는 용어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선천적인 특성과 아울러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의미가 매우 크게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한 인간이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등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성취한 하나의 ‘업적’으로서의 성향적인 특징, 즉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를 지칭하게 되며 이는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정미경, 2008).

품성의 측면에서는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도덕적 문제의 인식 및 판단에 관한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를 아는 것, 관점 채택, 도덕적 추론, 그리고 왜 우리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

기인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의적 측면은 양심, 자존심, 도덕적 감수성, 감정 이입, 선을 사랑하는 것, 겸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품성의 행동적 측면은 도덕적 판단과 감정을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행능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용기와 의지, 그리고 좋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습관 등으로 이루어진다(최현, 2007).

감민경(2008)은 품성은 본질적으로 인지적인 면, 정의적인 면, 행동적인 면의 세 측면이 있는데, 각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연구하였는가에 따라서 품성 발달에 대한 이해와 개입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품성발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심리학적 견해에 ‘인지를 강조하는 인지발달, 정서를 강조하는 정신분석,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로 구분(김호권, 1997)한다고 보았다.

이의중(2003)은 품성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관계없이 도덕적 실체는 하나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도덕적으로 교육을 받은 인간으로서 품성의 형성은 도덕적 삶의 전체성과 단일성을 반영한다.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각각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독자적인 경험의 영역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품성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인지, 정서, 행동의 세 가지 영역의 통합적 발달이 강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품성의 도덕적인 측면을 중점으로 하여,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품성을 갖춘 상태로, 도덕적 덕목들을 내면화한 상태로 중점을 둔다.

나. 품성계발 프로그램

1995년 ‘청소년 도덕성 회복 운동’으로 시작되어 우리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교육에 주력해오다가, 2000년부터는 보다 기본적인 ‘청소년 품성계발’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문제 예방 및 조기개입, 높은 학교생활 만족도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덕목의 구성과 그 역할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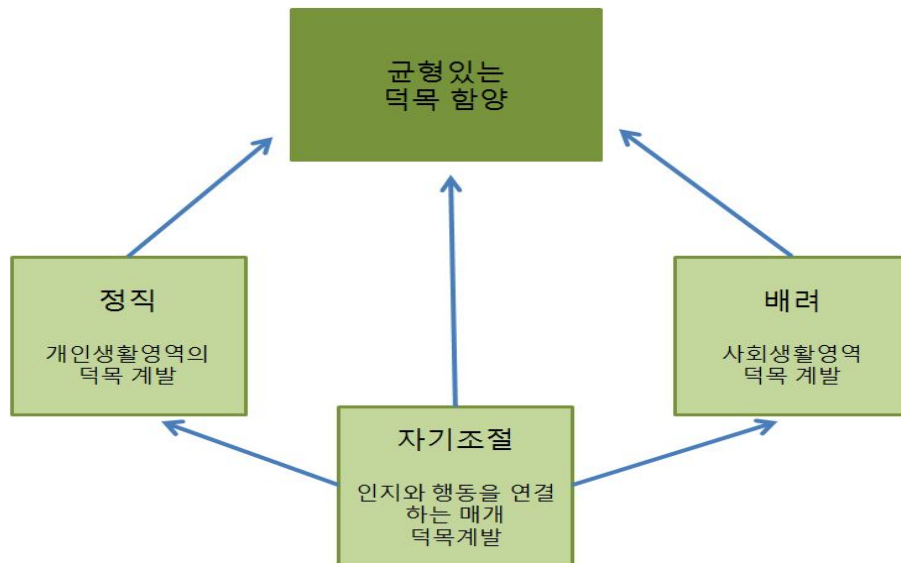


그림 II. 품성계발프로그램의 덕목의 구성과 그 역할(올틴품성계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인 ‘멋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 교육의 목표를 인격 혹은 품성계발로 보고 있다. 품성이 도덕적 인지, 도덕적 정서 및 도덕적 행동의 세 가지 요인에서 발현되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는 통합적인 품성교육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멋진 우리’는 수많은 덕목들 중에서 학교 및 상담현장에서의 지도자들, 전문가, 품성계발 교수요원 등으로부터의 자문과 청소년들에게 면접, 품성 설문조사를 거쳐 정직, 배려, 자기조절이라는 세 가지 덕목들을 선정하고 이러한 덕목들을 인지, 정서, 행동 3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여 덕목 실천의 실천동기와 의지를 키우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방법을 프로그램화 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0).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주요 덕목인 정직, 배려, 자기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직

정직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논의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를 들어 정직을 절대적 도덕규범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규범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장희선, 2012; Kohlberg, 1958, 1984; piaget, 1932, 1965).

사전적 의미(국립 국어원, 2012)에서의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으로 정의되며, 정범모(2004)는 정직성을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것, 즉 사실대로 말하고 당위대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정직함을 도덕 그 자체로 보고 도덕성을 이루는 근간이라고 하였다.

정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시되는 대표적인 덕목의 하나이고, 불교의 실천덕목인 팔정도론에서 바른 관찰, 긍정적인 사고, 상냥한 말씨, 친절함, 지혜로운 생활, 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박성민, 2009).

2)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쓴다는 의미의 배려라는 덕목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자신의 입장을 위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어려움이나 필요를 반응하고 타인에 대해 느끼는 도덕적 감정이나 행동, 태도를 말하며(국립 국어원, 2012), 배려를 개인적인 미덕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 받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타인과 관련되는 연결고리에서 배려 윤리의 핵심이 있다(임청숙, 2008).

사회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유대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의 배려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른이나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배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진맥진해 있거나 낙담해 있을 때 혹은 피곤하거나 의기소침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 주기’를 필요로 하거나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은 배려를 필요로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역으로 이 권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상대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보다 우선시하고 타인의 어려움이나 필요에 응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문정애, 2008).

Nodding(1992)은 어떤 대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정신적 상태 그리고 그 대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돕는 행동적 태도가 배려라고 정의하였다.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 불안이나 공포, 우려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심적 부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의 대상이 겪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여 그 최선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odding(1984)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돌보는 것’과는 다르며, 배려는 남의 처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마음이 행동을 통해 실천될 때 비로소 배려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배려는 자기희생이 따르는 실천적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였다(이효주, 2013).

3) 자기조절

자기조절 능력은 자신의 충동과 무절제한 부분을 조절하여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어울리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다.

자기조절력은 어떤 상황의 요구에 따라 행동을 하는 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신체적 능력, 행동의 강도, 빈도, 지속성 등을 조절하는 능력 혹은 하고자 하는 목표나 목적을 위한 행동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의되어져 왔다(최정원, 1999).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며, 상황적 요구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으며, 사회적·교육적 장면에서 언어적·신체적 활동의 강도, 빈도와 지속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조절능력이라 한다. 바람직한 목표에 맞게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다른 외부적인 감시 없이도 사회적으로 인정된 행동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보고 이러한 기술 획득의 지연을 보인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금지된 행동,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을 말하며, 행동을 기다리고 유보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 및 자기관리의 능력들도 자기조절력에 포함된다(안미경, 1996).

Mischel(1983)은 사회학습이론을 토대로 한 만족지연능력으로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연구에 크게 공헌한 학자로 자기조절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으로 만족지연능력(delay of gratification)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기조절능력을 더 매력적이고 좋은 결과 혹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즉시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거나 덜 좋은 결과 혹은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은 사회적 강화에 의한 것으로 지연된 큰 보상을 취하는 것이 가치 있고 적절하다는 것을 아동이 학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자기조절능력 발달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이영주, 2007).

자기조절력은 이처럼 바람직한 목표에 맞도록 자신의 활동을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환경적인 억압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행동이나 금지된 행동 등을 의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현(2006)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아수용과 자아존중, 자아신뢰에서 사전, 사후 점수를 측정한 결과 사후점수가 높게 나타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감민경(2008)의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존중감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

의 전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들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부분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현숙(2008)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 사후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자기조절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지적 요인, 동기적 요인, 행동적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으며, 자기통제력이 의미있게 향상되었다. 또한 집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의 말이 오고가는 가운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구성원들 간에 친밀함이 형성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이 자기조절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정의(2008)의 연구에서는 품성계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 척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였고, 프로그램 활동 중에 나타나는 서로간의 배려와 격려, 관심이 자기 자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이 행동관찰과 소감문을 통해 나타났다.

박성민(2009)의 연구를 살펴보면 품성계발 집단상담은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 대하여 보고 느끼는 정도인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타인에 대해 느끼는 자신과의 거리감을 줄이며, 타인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보다 건설적으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권소영(2011)의 연구에서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자기통제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활동 주제들이 초등학생들의 집단 활동에 적합하고 게임, 모델링, 역할놀이 등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직, 배려라는 덕목과 더불어 자기통제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초등학생의 이타행동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프로그램

에 참여한 학생들은 배려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수록 자신도 즐거워진다는 것을 체험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 자신도 배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타행동이 증진된 것으로 보았다.

배화중(2012)의 연구를 살펴보면,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에게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초기와 중기까지 왕따,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을 호소했던 대상아동들이 프로그램 종결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그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자아존중감 사전점수의 영향을 배제하고 사후점수 평균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품성계발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타인들과의 사회적인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실험설계, 실험도구, 자료처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해 보겠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서귀포시 S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4 ~ 초6 저소득층 아동 16명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는 아동들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8명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으로 8명을 구성하여, 아무런 처치도 가하지 않았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 아동의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변인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이다.

본 연구의 실험설계 모형은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모형으로서, 실험집단에는 사전검사와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사전검사 후에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고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설계 모형은 다음 모형과 같다.

실험집단	O ₁	X	O ₃
통제집단	O ₂		O ₄

X : 실험처치(품성계발 프로그램)

O₁ O₂ : 사전검사(인간관계, 타인존중태도)

O₃ O₄ : 사후검사(인간관계, 타인존중태도)

그림 III. 실험설계

3. 연구도구

가. 품성계발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0)이 학생들이 지향해야 할 대표적인 덕목들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매주 2회 50분씩 총 9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회기당 시간은 50분으로 프로그램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되었다. 도입부분에서는 게임 등을 통해 회기 주제와 관련지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전개에서는 프로그램의 단원 및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무리 시간에는 회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발표하면서 자신에 대해 돌아보고, 느낌을 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다음 회기까지 자신이 실천해야 될 내용에 대해 전달하였다.

둘째, 전개 진행은 활동지를 위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음악을 활용하였다.

활동은 2~3개로 주제 내용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활동 후에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시작 전 ‘우리의 다짐’을 상기시켰으며, 자신이 다짐으로 세운 점에 대해서는 매 회기 실천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 중간에 아동들의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프로그램의 수준과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도입에서 지난 회기의 느낌을 나누는 활동과 게임을 구성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연구자가 파악하고, 관심을 살피며, 학생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관찰하였다.

프로그램 구성과 회기별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I. 프로그램 구성과 회기별 세부목표

전개 단계	회기	단원	세부목표
만남의 장	반갑다 친구야	· 자기소개 · 우리의다짐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하고,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구성원 간에 관심을 갖게 되며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를 이해함
	신기한 문방구	· 신기한문방구	마음을 사고 파는 구매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 배려, 자기조절과 같은 덕목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깨달음
활동의 장	홀홀 터는 기쁨	· 거짓말투표 ·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 고백쪽지	거짓말의 의미, 심리적 배경 등에 대해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거짓말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식을 통해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다짐함
	혼자는	· 외톨이 게임	혼자됨의 의미와 어려움을 인식하고, 서로에

	이제 그만	· 벽뚫기 게임 · 춤추는 세탁기	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배려의 필요성과 기쁨을 느낌
	관심은 기본	· 사진찍기 · 칭찬세례	상대방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되고, 구성원들 서로간에 긍정적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배려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깨달음
	더불어 사는 마음	· 더불어사는 마음	배려 받고 싶은 상황에 관한 역할극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앎
	잠깐맨	· 잠깐맨, 계속맨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지를 역할연습을 통해 배우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학교 생활에 적용함
결실의 장	수호천사	· 수호천사	친구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직접 배려행동을 실천하고, 자신의 수호천사가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배려받는 행동과 도움 주는 행동의 값진 의미를 깨달음
	멋진우리	· 멋진우리	스스로에게 상장을 주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 변화된 점, 앞으로의 결의를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을 갖음

2) 회기별 프로그램 세부내용

1회기(만남의장)에서는 동그랴게 둘러앉아 ‘반갑다 친구야!’를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 및 프로그램 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자기소개 통!통!통!’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소개와 축진활동 시간을 통해 구성원 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의 다짐을 통하여 프로그램 활동과정에 필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회기(만남의장)에서의 ‘신기한 문방구’활동은 마음을 사고 파는 구매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마음(진실, 배려, 자기조절)과 같은 덕목이 바탕이 되는 활동을 실시한다. 사고 싶은 마음과 사려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지도자가 유목화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3회기(활동의장-진실) ‘홀홀터는 기쁨’에서는 거짓말 투표와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 고백 쪽지를 통해 평소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 투표 형식을 통해 알아보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과 심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와 거짓말 이면에 있는 긍정적인 동기를 깨달아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거짓말의 기억을 쪽지를 통해 고백하고,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다짐한다.

4회기(활동의장-배려) ‘혼자는 이제 그만’을 통하여 외톨이의 입장과 외톨이를 만드는 입장을 현실감 있게 느껴보며, 배려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체험하게 된다. 또한 춤추는 세탁기를 통하여 서로에 대해 조그만 관심과 노력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성취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과정으로 경험하며 배려의 힘을 깨닫는다.

5회기(활동의장-배려)에서는 ‘관심은 기본’이라는 주제로 사진찍기, 칭찬세례의 활동을 실시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상대방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새롭게 타인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되며, 구성원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배려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깨닫게 된다.

6회기(활동의장-배려) ‘더불어 사는 마음’은 배려 받고 싶은 상황에 관한 역할극을 실시하고 구성원들이 동그랗게 둘러 앉아 자신이 일상에서 도움을 받고 싶었던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서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구성원들 스스로 역할극을 꾸밀 수 있도록 결정하게 한다.

7회기(활동의장-조절)은 ‘잠깐맨·계속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역할연습을 하며 화나는 상황에 대한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생활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

8회기(결실의장)에서는 수호천사를 통하여 직접 자신이 친구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배려행동을 실천하고, 수호천사에게서 받은 배려행동을 돌아보며 자신이 타인에게 베푼 배려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9회기(결실의장) ‘멋진우리’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상장을 주어 자신의 장점과 강점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갖으며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 앞으로의 다짐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나. 인간관계

본 연구에서는 Schlin과 Guern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문선모(1980)가 번안한 척도를 홍경자, 김선남(1986)이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0)에서 사용한 것을 이의종(2003)이 어색한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7개의 하위영역에 걸쳐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방식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아동의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측정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과 사회적인 유능성의 향상을 측정한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과 지도력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 또한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관계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를 아동이 접하는 가족과 교사, 학급의 친구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친구 등과의 관계로 인간관계의 범위를 한정한다.

구체적인 하위 영역은 만족감(4문항), 의사소통(5문항), 신뢰감(3문항), 친근감(3문항), 민감성(2문항), 개방성(4문항), 이해성(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의종(2003) 연구에서의 검사도구 신뢰도는 .92이며, 검사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 인간관계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만족감	4	1,2,3,4	.77
의사소통성	5	9,14,18,19,24	.81
신뢰감	3	15,17,23	.83
친근감	3	5,11,16	.75
민감성	2	6,10	.68
개방성	4	12,20,21,22	.66
이해성	4	7,8,13,25	.77
계	25		.92

다. 타인존중태도

황희란(2001)의 타인 의식 설문지를 참고하여, 초등학교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교육인적자원부, 2001)에 제시된 타인존중의 지도 요소를 근거로 이현구(2005)가 재구성하여 관용의 태도, 입장변화의 태도,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봉사의 태도, 협동하는 태도, 친절함 태도의 7개 영역을 선정하였고, 조인실(2008)이 사용한 타인존중태도 검사를 사용한다.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상호 존중하는 규율과 의지의 자율성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는 각 문항 별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척도로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타인존중태도 검사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95이다. 검사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V. 타인존중태도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s α)
입장변화	3	1,3,17	.66
친절	3	5,10,18	.71
관용	3	2,4,20	.67
약속	3	9,15,19	.90
봉사	2	13,14	.73
협동	3	11,12,16	.89
의견존중	3	6,7,8	.82
계	20		.95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대상선정, 사전검사, 실험·통제집단의 구성, 품성계발 프로그램 적용,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무선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VI. 연구의 진행절차

실험단계	내용	일정	대상집단
대상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지역아동센터 4~6학년 16명	2013.11.18~ 2013.11.22	
사전검사 및 집단구성	인간관계, 타인존중태도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 구성	2013.11.25~ 2013.11.29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처치	품성계발 프로그램	2013.12.6~ 2013.12.31	실험집단
사후검사	인간관계, 타인존중태도	2014.1.10	실험집단 통제집단

가. 연구대상 선정 (2013년 11월 18일 ~ 2013년 11월 29일)

본 연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S지역아동센터 이용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 16명을 선정하여 8명을 실험집단으로, 8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나. 품성계발 프로그램 실시 (2013년 12월 6일 ~ 2013년 12월 31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6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 2회 1회 기씩 9회기의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매 회기 당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였다. 프로그램 실시는 12월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정해진 시간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실에 원형으로 둘러 앉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통제집단에는 평소와 같은 일상 생활을 유지하고, 아무런 처지를 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개인별 활동형태, 조별 활동형태를 취하였다. 매 회기마다 참가자들은 소감을 이야기하였고, 연구자가 참여모습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다. 사후검사 실시 (2014년 1월 10일)

프로그램이 끝나고 2014년 1월 10일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가. 양적분석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분석방법으로 SPSS Window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실험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사전 점수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집단간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나. 질적분석

본 연구 결과에서 통계적 검증에 따른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적인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매 회기마다 작성된 활동지와 느낌나누기를 연구자가 기록하여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방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가. 인간관계 사전 동질성 검증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사전점수 검사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인간관계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두 집단 간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동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I. 인간관계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족감	3.38	.75	3.53	.57	-.46
의사소통성	3.40	.91	2.90	.63	1.27
신뢰감	3.25	.88	3.04	.48	.58
친근감	3.04	.96	2.88	.64	.40
민감성	3.06	.94	3.13	.79	-.14
개방성	3.16	.98	3.06	.43	.24
이해성	3.13	.77	3.19	.78	-.16
인간관계 (전체)	80.62	12.07	3.11	.48	.39

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인간관계 검사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한 결과이다. 인간관계와 그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 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만족감($t=-.466, p=.649$), 의사소통성($t=1.273, p=.224$), 신뢰감($t=.583, p=.569$), 친근감($t=.406, p=.691$), 민감성($t=-.144, p=.888$), 개방성($t=.247, p=.809$), 이해성($t=-.160, p=.876$) 점수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399, p=.696$). 즉 각 경우 모두 $p>.05$ 로 품성계발 프로그램 실시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은 서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나. 타인존중태도의 사전 동질성 검증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타인존중태도에 있어서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 간 사전점수 검사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타인존중태도의 각 하위 영역별 점수를 두 집단 간 평균,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동질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III. 타인존중태도 사전 동질성 검증

하위요인	실험집단		통제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입장변화	3.00	1.024	3.21	.469	-.523
친절	3.50	1.084	3.54	.665	-.093
관용	3.04	.863	3.25	.584	-.566
약속	3.50	1.182	3.46	.562	.090
봉사	3.44	1.266	3.25	.756	.360
협동	3.54	1.259	3.46	.872	.154
의견존중	3.13	1.168	3.12	.396	.000
타인존중태도 (전체)	3.30	.996	3.33	.444	-.081

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타인존중태도 검사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한 결과이다. 타인존중태도와 그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입장변화($t=-.523$, $p=.609$), 친절($t=-.093$, $p=.927$), 관용($t=-.566$, $p=.581$), 약속($t=.090$, $p=.930$), 봉사($t=.360$, $p=.724$), 협동($t=.154$, $p=.880$), 의견존중($t=0.000$, $p=1.000$) 점수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081$, $p=.937$). 즉 각 경우 모두 $p>.05$ 로 품성계발 프로그램 실시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은 서로 동일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검증

가. 인간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1】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인간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인간관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만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I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간관계 사후-사전검사 결과 비교

하위요인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t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만족감	1.38	.94	-.28	.70	3.98**
의사소통성	1.23	1.09	.20	.78	2.14*
신뢰감	1.38	.96	.25	.42	3.01**
친근감	1.58	1.09	.08	.66	3.31**
민감성	1.25	1.30	-.13	.91	2.43*
개방성	1.41	1.30	.03	.73	2.58*
이해성	1.38	1.00	-.28	.88	3.51**
인간관계 (전체)	1.36	.92	-.02	.51	3.68**

* $p < .05$, ** $p < .01$

실험집단의 인간관계와 그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과 사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만족감($t=3.984$, $p < .01$)’, ‘의사소통성($t=2.148$, $p < .05$)’, ‘신뢰감($t=3.011$, $p < .01$)’, ‘친근감($t=3.318$, $p < .01$)’, ‘민감성($t=2.434$, $p < .05$)’, ‘개방성($t=2.589$, $p < .05$)’, ‘이해성($t=3.516$, $p < .01$)’ 점수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t=3.687$, $p < .01$).

따라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던 통제집단보다 인간관계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수용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그 하위요인들 중 만족감, 의사소통성,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의 향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타인존중태도에 대한 가설 검증

【가설 2】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타인존중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타인존중태도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만 적용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X.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타인존중태도 사후-사전검사 결과비교

하위요인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t
	사후-사전	표준편차	사후-사전	표준편차	
입장변화	1.13	1.272	-.12	.755	2.391*
친절	.67	1.069	-.17	1.297	1.402
관용	1.13	.907	-.46	.958	3.393**
약속	.79	1.097	-.29	.863	2.195*
봉사	.50	1.439	-.06	.729	.986
협동	.63	1.133	-.21	.890	1.636
의견존중	.92	1.218	-.29	.653	2.472*
타인존중태도 (전체)	.84	.978	-.24	.657	2.581*

* $p < .05$, ** $p < .01$

표는 품성계발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타인존중태도 사전과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 값으로 t검증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인존중 태도의 전체 점수에서 실험집단은 평균 0.84가 증가했고, 통제집단은 0.24가 감소하였다. 이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581$, $p < .05$).

또한 7개의 하위영역 중 친절, 봉사, 협동 3가지 하위요인을 제외한 ‘입장변화($t=2.391$, $p < .05$)’, ‘관용($t=3.393$, $p < .01$)’, ‘약속($t=2.195$, $p < .05$)’, ‘의견존중($t=2.472$,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타인존중태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그 7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입장변화, 관용, 약속, 의견존중 4가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친절, 봉사, 협동 3가지 하위요인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낮은 자존감에서 자기보호를 위한 자기들만의 방어로 공격적인 성향과 타인들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경계심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소감문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

본 연구에서 통계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검사지 반응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품성계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소감문과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연구자의 관찰일지를 통한 평가 및 해석

프로그램 실시 후 대부분의 참가 아동들은 대화법이 부드러워졌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아동들이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많이 나타냈으며, 몸이 불편한 친구와 말이 어눌한 친구 등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4회기부터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연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도 표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생겼다. 게임, 그룹작업 등 협동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나. 회기별 소감문

매 회기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느낌을 정리하고 그 회기의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된 점,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회기별 소감문 내용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XI. 회기별 소감문

회기	활동주제	회기별 소감
1	반갑다 친구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색하고 창피했다. - 선생님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니, 무슨 말을 해야 될 지를 잘 모르겠다. - 품성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니 이해가 되었다. 프로그램에 늦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2	신기한 문방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방구라는 제목이 재미있다. 내가 버리고 싶었던 마음을 팔고 나니, 정말 내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 정말 마음을 사고 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얘기를 친구한테 했는데, 친구가 정말 내 마음이 팔리고,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을 샀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다.
3	홀홀터는 기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말을 고백하고 나니 창피하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니 마음이 후련하다. - 혼이 나지 않으려고 한 거짓말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얘기를 하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니 기분이 나아졌다.
4	혼자는 이제 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톨이게임을 하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 - 그동안은 얘기를 많이 해서 중간에 좀 졸렸는데, 오늘은 몸을 많이 움직여서 내 기분이 더 신났다. - 벽 뚫기 게임은 정말 힘이 세도 혼자로는 너무 힘이 들었다. 아무리 힘이 센 아이라도 혼자서 많은 친구들을 이기려면 힘이 들겠지? 서로는 함께 도와야 하는 존재!

5	관심은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칭찬을 하니까, 쑥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직도 생각하니 웃음이 난다. - 사진찍기를 흉내 내는데, 앞 팀이 너무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큰소리로 웃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크게 웃어서 OO이가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이 되었다. - 친구의 변한 모습 찾기 게임에서 엄지손가락을 접은 것을 내가 바로 찾아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이런 것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6	더불어사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진돗개가 쫓아와서 눈물이 났는데, 같이 가던 **이가 개를 쫓아주었다.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났다. 그 **이가 너무 고마웠다. - 센터에 뛰어오다가 넘어졌는데, △△이가 손을 잡아주어서 아프지 않았다. △△야 고마워^^
7	잠깐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 날 때 “잠깐!” 이라고 외치면 정말로 신기하게 화가 난 마음이 잠깐! 멈췄다. 앞으로 화가나고 억울할 땐 잠깐! 을 외쳐야겠다.
8	수호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수호천사는 바로바로~~! 별로 잘해주지 못해서 공개할 때 너무 미안했다. 수호천사가 끝나도 나의 수호천사는 계속 될 것이다!
9	멋진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 진짜 학교에서 상을 받는 기분이다. 덩달아 나도 착해진 거 같다. - 한번도 빠짐없이 프로그램을 해서, 나도 내가 너무 대견하다.

회기별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회기가 진행 될 수록 소감내용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며, 그런 부분들이 소감문에서 많이 나타났다. 후반부로 갈 수록 언어표현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 타인과 어울리며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하는 S지역아동센터 초4~6학년 저소득가정 아동 16명을 선발하여 실험집단 8명, 통제집단 8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인간관계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와 타인존중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00)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 차이를 비교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소감문 및 연구자의 관찰기록 내용을 토대로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관계에 만족감, 의사소통성,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을 모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이의중(2003)의 연구에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관계 하위영역 중 만족감, 친근감, 이해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지지하며,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현주(2004)의 연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양은모(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박성민(2009)의 연구에서도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했다. 따라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적극적이고 유용성을 확장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기별 소감문에서 자신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함을 이해하고, 친구의 배려심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이 인간관계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만족감이 충족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며, 소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타인존중태도에 효과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하위영역인 친절, 봉사, 협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따라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과 봉사, 타인과 함께 하며 공동체 속의 개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협동심을 키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에 입장변화와 관용, 약속, 의견존중에서는 긍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어적인 생활태도와 타인이나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그들과 같지 않은 조건에서 생활한다는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타인존중태도와 관련하여 임기숙(2003)의 연구에서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타인존중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고, 이현숙(2005)의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타인존중태도 중 의사소통 영역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특히 인간관계 하위영역인 만족감, 의사소통성,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모두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인간관계를 만족시키며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질적연구를 통하여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법, 관심을 갖고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사소한 변화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서로는 함께 도와야 하는 존재’ 등의 반응으로 통해 자신을 중심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타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타인존중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타인존중태도의 하위영역인 입장변화, 관용, 약속, 의견존중 영역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특히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아,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힘들었던 아동이 집단활동을 통해 다른 아동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소감문 및 연구자의 관찰에 의한 분석과 양적분석을 종합해본 결과, 품성계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시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저소득층 아동들의 연령대에 일반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연구결과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인간관계와 타인존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다양한 연령대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약 한 달 동안 1회기 50분씩 총 9회기에 걸쳐 단기간에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대상 아동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인지 내면화 된 변화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과정보다 장기간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며, 가정환경에 관련한 좀 더 깊이 있는 상담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와 상담을 병행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특성상 적은 수의 학생과 정부에서 저소

특 가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저소득 아동 중에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가정 아동들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인원을 8명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수와 다양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일반화 되어질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 감민경(2008).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강경미(2012). **격려 프로그램이 아동의 열등감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2010). **저소득가정의 환경적 지지가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형식 외(2008). **아동복지론.** 경기:공동체
- 국립국어원(2012). **표준국어대사전.**
- 김완수(2013). **진로자립프로그램이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자립준비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 양미진, 김은영(2000a). **청소년 품성실태조사. 청소년 품성활성화 대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희선(2009).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한 이웃특성과 주양육자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우, 이지현(19991). **집단 미술치료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증진.** 미술치료연구, 6(1), 42-50.
- 목진세(2009).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효과성 연구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정애(2006). **Nodding의 배려윤리와 그 교육적 의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2005). **가정결손여부가 저소득가정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서식(2003). 민주적인 양육방식, 자아존중의식 및 타인존중의식과 도덕성의 관련성.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민(2009). 품성계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 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화중(2012).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교육복지 대상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13).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수준.
- 서명원(1989). 교육학대사전.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설기문(2002).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학지사.
- 설연옥(2004). 초등학교 집단따돌림가해아동의 타인존중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연선(2003). 아동의 조망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과(2008).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개발연구원
- 안현옥(2008).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은(2011).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모(2006).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엄성호(2004). 인간관계촉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개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2013). 한부모가정 최저생계비 수준.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효림(2010). 지역아동센터 경험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6).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의종(2003). 품성계발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인간관계 및 자기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희(2012). 초등 저학년생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공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욱(2009). 차상위계층의 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형득. (1992). 상담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효주(2013). 배려교육활동이 유아의 공감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기숙(2003).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타인수용에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청숙(2008). 배려의 관계에서 공감(empathy) 발달을 위한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선(2012). 한국인의 정직과 전통적 가치의 갈등양상 및 해소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경(2008). 품성계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2009). 존중을 통한 도덕공동체 의식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실(2008). **배려증진 집단지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타인존중 태도 및 교우 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형철(2006).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북 지역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희(2005). **인터넷 매체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 인터넷 게임, 채팅, 블로그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부근(1993). **아동이 지각한 가정 및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2007).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2014). **품성계발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적 자아개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라(1996).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학교 생활 부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희란(2001). **공동체 생활체험을 통한 타인존중습관 형성**. 현장연구 논문.
- Bandura, A. (1969). Social-learning theory of identification progress. In *P.A Goslined, Hanm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 Kohlberg, L.(1958). The development of modes of thinking and choice in years 10 to 16.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Kohlberg, L.(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San Francisco: Harper & Row.

- Mischel, H. N. & Mis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19-630.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ddings, N. (1992). *The challenge to care in school : An alternative approach to education*. NY: Teachers College Press.
- Noddings. N. (2002). *Educating moral people : A caring alternative to character education*.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 Perry D.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prentichall.
- Piaget, J.(1932/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A Therapist's View of Psycho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elman, R. N.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Orlando FL: Academic Press*.
- Sullivan, M. S. (1953).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ABSTRACT>

The Effect of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o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Regarding their Human Relations and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Lee Yu-jin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o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regarding their human relations and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research problems are set up as follows:

Research Problem 1: Does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have an effect o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in improving their human relations?

Research Problem 2: Does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have an effect on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in improving their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s above, this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of subjects, pretesting, organizing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applying the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and lastly, post testing to process statistics and analyse data.

Among children from the Child Community Care Center located in Seogwipo-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16 elementary students from fourth to sixth grade willing to participate in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for the study, and eight student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the Program developed b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Old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is researcher conducted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twice a week for 50 minutes, nine times in total, by supplementing, amending, and taking advice from an academic advisor in accordance with its purpose.

In order to measure their ability for building human relations, a human relations test sheet was used, which had been used by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in 2000 and revised by Lee Ui-jong in 2003. The subcategories of human relations consist of a total of 25 questions in terms of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nfidence, affinity, sensibility, openness, and understandability. In addition, the examination used by Choi In-sil in 2008 was used to check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When it comes to subcategories of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the test focuses on changes in their stance, kindness, tolerance, pledge, service, cooperation, and respect for others' views, which composed of 20 questions in total.

SPSS Windows 18 served as a way of data analysis; to verify the formulated hypothesis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applied to an experimental group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tests was examined by conducting a posttest for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a paired sample t-test was carried out for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reviews written by the participants per session and the researcher's observations were analyz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human relations of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were improv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ho didn't attend the program.

Secondly, satisfaction, communication, confidence, affinity, sensibility, openness, and understandabil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he control group.

Thirdly, a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enhanc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urthly, the subcategories of a respectful attitude towards others, such as changes in their stance, tolerance, pledge, and respect for others' views, were more significantly impro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kindness, service, cooper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improved a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capability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through relations with others, and helped them play an important role in leading a positive, valuable life by improving their relations with others in everyday life. A Character Development Program will be useful in solving and preventing problems caused by the child's inability to sympathize with others' emotions, difficulties which often result in outcasts and bullies.

부 록

<부록 1> 인간관계 검사지	58
<부록 2> 타인존중태도 검사지	60
<부록 3> 품성계발 프로그램 계획안 및 활동지	62

인간관계 및 타인존중태도 질문지

이 질문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와 나의 인간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해당하는 곳에 표 하여 주십시오.

이 질문지는 정답이 없으며, 절대로 비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부담 없이 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해 주신 결과는 연구의 목적으로만 쓰입니다 ^^ 감사합니다.

연구자 : 이유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010-4125-3478 , lyj812@naver.com

<인간관계>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만족한다.					
3	남들은 나를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볼 것 같다.					
4	남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것 같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7	나는 나 자신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8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이해한다.					
9	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0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1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고 따뜻하게 대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많이 개방하고 표현하는 편이다.					
1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편이다.					
15	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					
16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편이다.					
17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다.					
18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잘 해결하는 편이다.					
19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21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다.					
22	나는 다른 사람과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 다.					
2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느낌을 믿고 받아들인다.					
24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좋은 방향으로 다 룰 수 있다.					
25	나는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하는지 잘 알고 있는 편이다.					

<타인존중태도>

번호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친구의 입장을 생각하여 행동한다.					
2	나는 친구의 잘못을 아껴주고 감싸준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 본다.					
4	나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					
5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6	뚜렷한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지 않는다.					
7	남을 의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잘못이 있나 되돌아본다.					
8	우정 어린 충고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9	친구와 함께 놀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참고 논다.					
10	내 물건을 친구에게 잘 빌려준다.					
11	모둠 학습을 할 때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좋다.					
12	한 모둠이 되어서 공부나 일을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의욕 있게 한다.					
13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14	집에 일이 있어도 학교에서 1인 1역 활동은 하고 돌아간다.					
15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킨다.					
16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17	남을 업신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18	이웃에 사는 친구와 웃어른을 보면 내가 먼저 아는 체를 한다.					

19	학급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킨다.					
20	상대방과 다투었을 때는 내가 먼저 사과한다.					

품성개발 프로그램 - 1회기 반갑다친구야!

회기	1	주제	준비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그램 목표 및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2.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준비활동 게임을 통하여 구성원간에 관심을 갖는다. 3. 프로그램의 활동과정에 필요한 규칙에 대해 이해한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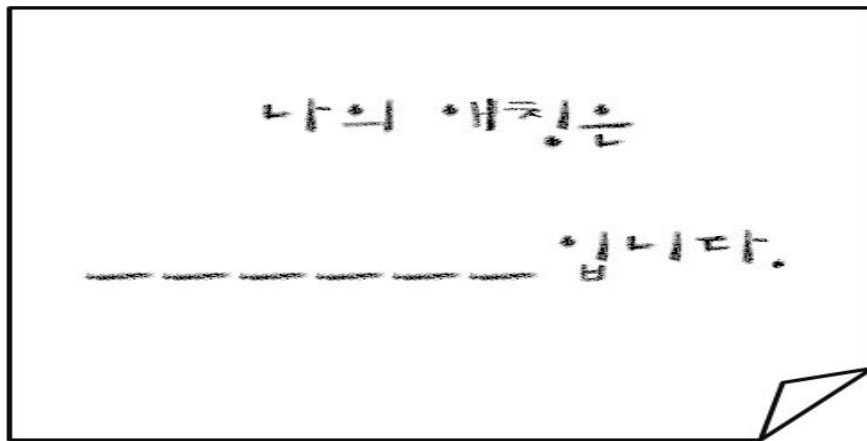
단계	활동내용
도입	<p>프로그램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구성원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는다. - 프로그램의 목적 및 내용, 진행 시간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전개	<p>자기소개 통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과 마음을 풀기 위한 촉진활동 중에서 게임을 활용한다. 자기소개하기! 게임을 통하여 자신의 애칭을 짓고, 후라이팬놀이 게임을 응용하여 애칭을 외우고, 구성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p>우리의 다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인지, 규칙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눈다. - 비밀보장을 약속한다. - 회기가 끝날 때마다 ‘우리의 다짐’ 을 읽는다.
마무리	<p>느낌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얻은 생각을 느껴본다. - 각자 느낀점을 얘기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소감문으로 나타낸다.

활동지 1-1

첫 번째 만남, 반갑다 친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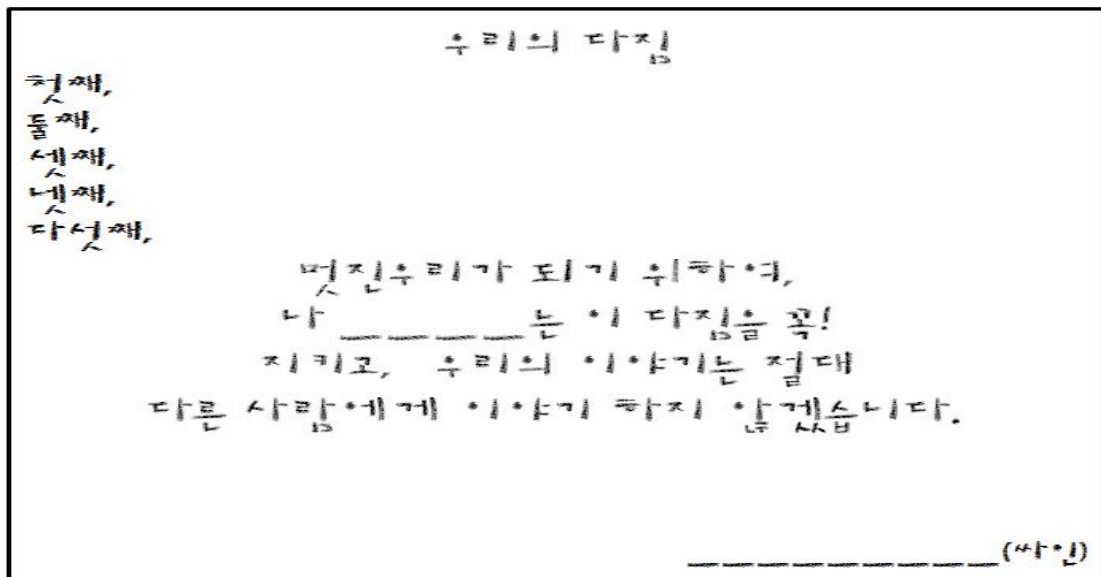
◎ 자기소개 통!통!통!

나의 애칭을 지어봅시다. 애칭을 정하고, 나의 명찰을 이쁘게 꾸며봅시다.



◎ 우리의 다짐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나의 다짐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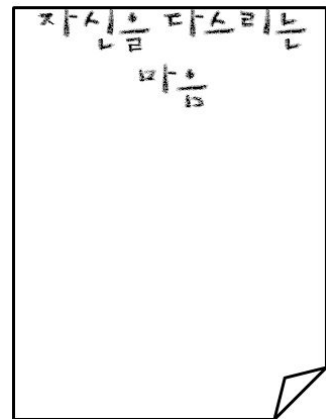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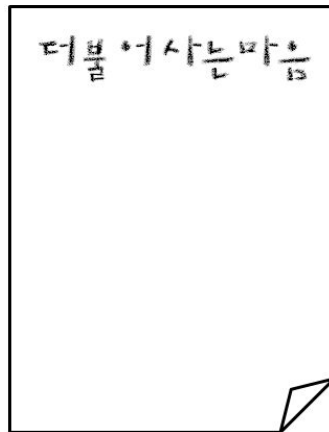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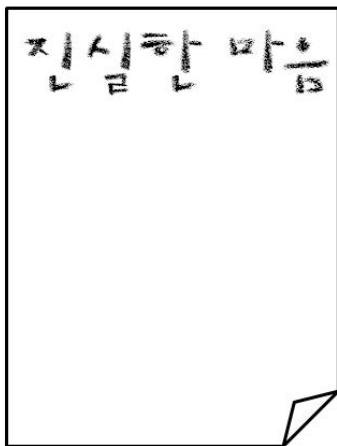
품성개발 프로그램 - 2회기 신기한 문방구

회기	2	주제	준비활동
목표	1. 마음을 사고 파는 구매 과정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 배려, 자기조절과 같은 기본 덕목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색도화지, 색연필, 양면테이프		

단계	활동내용
도입	<p>프로그램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구성원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는다. - 구성원들의 주의집중을 위해 할리갈리 보드게임을 실시한다.
전개	<p>신기한 문방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가운데에 지도자가 서서, 지도자는 문방구 주인이 되어 문방구특징을 소개한다. - 각자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문방구 주인은 구성원들을 가운데로 한명씩 불러 어떤 마음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게 하고, 원하는 마음을 얻고 난 이후의 상태를 상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준다. - 원하는 마음을 얻은 후, 그 마음을 종이에 적고, 구성원의 가슴에 붙인다) - 구성원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은 문방구 주인에게 되판다. - 진실한마음, 더불어사는마음, 자신을다스리는마음 으로 구분하여 구성원들이 사고 판 마음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마무리	<p>느낌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느낀점을 얘기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소감문으로 나타낸다.

두번째 만남, 신기한 문방구!

◎ 여러분! 신기한 문방구는 특별한 가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파는 가게죠.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사고 그 값으로 돈 대신 버리고 싶은 마음을 되파는 식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문방구입니다.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음, 예를 들어 친절, 유머, 봉사정신, 용기 등 무엇이든 살 수 있어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신기한 문방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사고 싶은가요? 잠시 생각한 후 준비가 된 친구는 앞으로 나오세요~◎



◎ 마음을 살 때의 느낌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 마음을 버릴 때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떠했나요?

품성계발 프로그램 - 3회기 훌훌 터는 기쁨

회기	3	주제	준비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 자주 그리고 쉽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2.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심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거짓말의 이면에 있는 긍정적 동기를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3.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거짓말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다진다. 	
준비물		거짓말 고백쪽지, 걱정인형, 필기구	

단계	활동내용
도입	<p>프로그램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구성원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는다. - 구성원들과 경찰과 도둑 게임을 통하여 거짓말을 할 때 나의 마음과 감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 구성원들과 거짓말에 관련된 동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p>거짓말 투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내가 가장 자주 그리고 쉽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쓴다. - 그리고 바구니에 담고, 어떤 거짓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지를 예상한다. <p>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짝을 맺고,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 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동기를 찾아본다. - 동기를 거짓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다. <p>고백쪽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백 쪽지에 이제까지 했던 거짓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을 떠올리고 그 일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마음, 양심의 가책 등을 생각한다. - 자신의 거짓말 경험과 그로 인해 불편했던 마음 또는 다짐등을 자유롭게 쓴다. - 구성원들이 거짓말을 걱정인형안에 넣고 모두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마무리</p>	<p>느낌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느낀점을 얘기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소감문으로 나타낸다.

3-1 활동지

세번째 만남, 훌훌 터는 기쁨

◎ 여러분, 나무꾼과 호랑이 형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호랑이에게 자기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순진한 호랑이가 그 말을 믿고 나무꾼과 그 어머니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줬다는 이야기지요~ 혹시 거짓말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많이하고 가장 쉽게 하는 거짓말을 적어보세요.

◎ 나의 거짓말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 4회기 혼자는 이제 그만

회기	4	주제	준비활동
목표		1. 외톨이의 입장과 외톨이를 만드는 입장을 각각 현실감 있게 느껴보고 배려행동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2. 서로에 대한 조그만 관심과 노력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성취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배려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다.	
준비물		필기구, 음악	

단계	활동내용
도입	프로그램 소개 -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구성원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는다. - 구성원들과 소외감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 학급에서 일어나는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외톨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개	외톨이 게임 - 가위 바위 보로 구성원 중 한사람을 술래로 정한다. - 술래가 아닌 구성원은 모두 밖을 향해 돌아선다. - 술래는 원 안에 들어간다. 게임이 시작되면, 술래는 구성원들에게 말을 걸고, 구성원들은 술래가 하는 말에 반응(눈마주침, 말대꾸, 웃음)을 보이면 안된다. - 반응을 보인 구성원은 술래가 되고, 술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이어나간다. - 외톨이 게임을 끝내고 느낌을 나눈다. * 술래가 되었을 때 느낌은 어떠했는가? * 술래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외면할 때의 나의 느낌은? 벽뚫기 게임 - 가위 바위 보나 혹은 술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술래를 정한다. - 술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서로 팔짱을 끼거나 서로

	<p>껴안아 동그랗게 벽을 만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래는 벽을 뚫고 원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구성원들은 벽이 뚫리면 게임은 끝이 난다. - 벽뚫기 게임이 끝나고 느낌을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술래가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p>춤추는 세탁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은 동그랗게 서서 양손을 잡아 원을 만든다. - 오른쪽과 왼쪽에 어떤 친구가 서 있는지 확인한다. - 구성원들은 춤추는 기능을 가진 세탁기 속의 빨래가 되는데, 신나는 음악을 틀고 마음껏 빙글빙글 춤을 춘다. - 음악이 꺼지면, 자리에 멈춰 선 후, 처음에 자신의 양쪽에 서 있던 친구를 찾아서 손을 잡는다. - 손을 놓지 말고 잡은 손 위를 넘어가거나 잡은 손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면서 본래의 원을 만든다. - 원래의 원으로 돌아온 상태로 자리에 앉는다.
<p>마무리</p>	<p>느낌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느낀점을 얘기하고, 이번 프로그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소감문으로 나타낸다.

품성개발 프로그램 - 5회기 관심은 기본

회기	5	주제	준비활동
목표		1. 상대방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 경험을 통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갖는다. 2. 구성원들이 서로 관심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배려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깨닫게 한다.	
준비물		사진기(강화물), 필기구, 색도화지	

단계	활동내용
도입	프로그램 소개 - 동그랗게 원 모양으로 구성원들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앉는다. - 서로 옆에 앉은 친구의 얼굴을 확인한다. - 옆 친구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한사람씩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개	사진찍기 - 구성원들이 두줄로 나뉘어 선 뒤 두 사람씩 마주보고 선다. - 한 사람은 사진사, 다른 한 사람은 모델이 되어 사진촬영을 한다. - 사진사는 양손으로 카메라 모양을 하고, 상대방을 사진 찍는 시늉을 하면서, 상대방의 모습을 관찰한다. - 그리고 모델과 사진사는 서로 등을 돌리고 서서 자신의 모습 중 한가지를 변화시킨다. - 다시 마주보고 돌아서면, 상대방의 모습 중 바뀐 부분을 알아맞힌다. - 느낌을 나눈다. * 모델이 되어 사진사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맞힐 때와 못 알아챘을 때의 느낌과 사진사로서 모델의 변화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느낌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칭찬세례사진 찍기 - 서로 잘 보이도록 동그랗게 둘러앉는다. - 처음 도입 부분에서 한 옆사람의 칭찬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p>장점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도화지에 자신의 애칭을 적고, 옆으로 돌려가며 친구들의 장점을 적는다. - 활동이 끝나고 지도자는 롤링페이퍼를 수합하여, 다음시간에 코팅을 하여 선물을 한다.
<p>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프로그램의 의미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구성원들로부터 받은 롤링페이퍼를 보며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지도자는 주변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관찰해보는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작게 둘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호감이 달라지고, 자신 역시 상볼 수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주 변화하는데 이를 눈여겨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고, 관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준비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롤링페이퍼 옆에 붙인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 6회기 더불어 사는 마음

회기	6	주제	준비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려 받고 싶은 상황에 관한 역할극을 통해 더불어 사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2. 다른 사람도 배려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 주고 받는 배려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물	색연필, 색도화지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은 자리에 동그랗게 앉는다. -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자신이 느낀 일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이야기들 중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 구성원들과 ‘우리들 중 누가 한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해보면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가장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가 있나요?’ 등의 질문을 던져 구성원들이 스스로 어떤 사례를 역할극으로 꾸밀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 사례가 결정되면, 배역을 정하고 역할극을 준비한다. - 역할극을 실시한다. - 역할극을 끝내고, 각 역할에서 생각,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쉬면서 눈을 감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활동에서 경험한 느낌, 생각을 떠올린다. - 각자 입장에서 느낌을 정리한다.

<활동지 6-1>

여섯번째 만남, 더불어사는마음

등장인물의 선정	
도움받고 싶어하는 주인공	
등장인물1	
등장인물2	
기타역할	

역할극 내용

품성계발 프로그램 - 7회기 잠깐맨

회기	7	주제	준비활동
목표	1.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화’ 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역할연습을 통해 배운다. 2. 화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지연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 학교 생활에 적용한다.		
준비물	색도화지, 필기구, 양면테이프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동그랗게 앉은 상태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 최근에 화가 났던 경험을 떠올린다. - 자신이 화가 난 상황과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한다. - 지도자는 그 중에서 공통되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이야기를 오늘 프로그램의 주제로 정한다.
전개	<p>잠깐맨 & 계속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공과 상대방 그리고 주인공의 두 가지 마음인 잠깐맨, 계속맨의 역할을 설명하고, 공통된 주제를 어떻게 역할극으로 꾸밀지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주인공, 상대방(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사물), 잠깐맨(2명), 계속맨(2명)으로 정한다. - 화나는 상황에 대한 행동과 대사를 정한다. * 계속맨 : 주인공의 화를 부추기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 * 잠깐맨 : 주인공이 화나고 속상한 마음에 대해 잠깐 멈추게 하는 마음 - 역할극을 실시한다. - 주인공이 먼저 화가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하고, 적당한 시점에 끼어들어 잠깐맨과 계속맨이 말을 건넨다. 잠깐맨과 계속맨이 하는 대사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말과 행동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서 극을 이어간다. - 양쪽 마음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다면 ‘이제 그만’ 하고 손을

	들어 역할극을 마무리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리에 앉아 쉬면서 활동에서 얻은 소감과 느낌을 생각한다. - 효과적인 화 다루기를 큰 소리로 읽는다 - 다음 회기를 위해 ‘수호천사’ 를 뽑는다. <p>* 일주일 동안 내가 뽑은 종이에 적힌 친구의 수호천사가 되어 주고, 일주일 후에 공개하기로 약속함.</p>

<7-1> 활동지>

일곱번째 만남, 잠깐맨

<효과적인 화 다루기>

- ☺ 화가 난 상황을 잠시 피한다.
- ☺ 심호흡을 한다.
- ☺ 눈을 감고 구구단을 외운다.
- ☺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 ☺ 화난 감정을 차분히 들여다 본다.
- ☺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한다.
- ☺ 화난 감정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한다.

품성개발 프로그램 - 8회기 수호천사

회기	8	주제	준비활동
목표	1. 친구들의 수호천사가 되어 직접 배려행동을 실천한다. 2. 수호천사로 받은 여러 가지 배려행동을 돌아보고, 친구들에게 배려하는 행동과 도움 주는 행동의 값진 의미를 깨닫는다.		
준비물	감사카드, 싸인펜		

단계	활동내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이 동그랗게 앉은 상태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 수호천사에게 받은 행동과 자신이 수호천사에게 해준 행동을 기억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은 서로 바라보며 자신의 수호천사가 누구라고 짐작 되는지 마음속으로 떠올려본다. - “하나, 둘, 셋” 이라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마음 속으로 떠올린 수호천사를 지목한다. -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실제 수호천사와 일치했던 경우와 자신이 생각한 수호천사가 달랐던 경우를 각각 손을 들고, 지도자가 집단 상황을 한꺼번에 파악한다. - 수호천사는 지도자가 준 카드에 친구의 이름을 적어, 수호천사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수호천사는 변함이 없음을 다짐한다. - 느낌을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떠올린 수호천사는 누구이며 어떤 행동이 그렇게 느껴졌는지, 배려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표현한다. * 수호천사는 자신이 노력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친구를 배려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오랜 시간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호천사가 적은 카드를 교환하며, 서로 포옹을 한다.

품성계발 프로그램 - 9회기 멋진우리

회기	9	주제	준비활동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스로에게 상장을 주어 자신의 장점이나 칭찬 받을 만한 행동들을 찾아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 2. 나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하여 이제까지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 변화된 점, 앞으로의 다짐 등을 확인하고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준비물		상장 틀, 싸인펜	

단계	활동내용
도입	- 그동안의 프로그램을 되돌아본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성계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시간임을 상기하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떠올린다. - 이제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후에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모습을 떠올려본다. - 상장 용지를 나누어주고,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상장을 만든다. - 칭찬을 받을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쓰도록 한다.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을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어떤 문구가 생각이 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상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상장 전달을 하고 간단한 다과회를 열어 구성원들의 심정을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변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상 장

제 학년 반

성명

나 _____는 품성개발프로
그램을 통하여 멋진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_____사람이 되겠습
니다.

2013 년 월 일